

## 중국어 미사

한국에는 약 100만 명의 중국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다. 그 중에 가톨릭 신자가 몇 명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히 가톨릭 신자가 있을 것이고, 미사를 중국어로 올리고 싶은 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몇 년 전부터 판단해왔다. 서울 근교에서 온전히 중국어로 미사를 올리는 곳이 있는가 알아 보았는데 한 곳도 없었다. 따라서 서울MLC와 SM은 매달 3째 주일에 마리아니스트센터에서 이홍은 베드로 중국 신부님께 부탁하여 중국어 미사를 올리기로 결정하였다. 2014년 5월부터 시작하여 15-25명의 중국인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주로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로 가톨릭 신자도 있고 비신자도 있다. 미사 후에는 교리도 배우고 MLC들이 준비한 점심을 함께 나누며, 향수도 달래며 서로 유용한 정보를 교환한다. 또한 MLC들과 친교를 통한 유대감과 마리아니스트 영성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2명의 젊은 형제가 세례를 받는 경사도 있었다.

중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외국인들의 선교활동을 중국 정부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다. 따라서 가톨릭을 포함한 여러 종교 단체에서 미래의 중국 선교를 위해 선교활동이 아닌 여러 다른 자선 활동을 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은 같은 유교 문화권의 나라로 앞으로 종교의 문호가 열리게 된다면, 한국과 일본 마리아니스트가 선교에 이점을 갖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한국 마리아니스트와 인연을 맺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언젠가 마리아니스트가 중국에 뿌리를 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굳게 믿는다.

